

■ '눈 폭탄' 맞은 장성 비닐하우스 농가

삶의 터전 '폭삭'... 무너진 농심

죽어가는 농작물 보며 '망연자실' '2년전 악몽 또...' 넋놓고 한숨만

“재작년 폭설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데.. 눈이 내릴 때마다 주름만 늘어가는 하우스 농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 뻘뻘입니다.”

새해를 맞은 농민들의 희망과 기대가 흰 눈 속에 파묻혔다. 구암 29일 이후 광주·전남지역에 나흘째 쏟아진 눈폭탄으로 비닐하우스가 폭삭 내려앉은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조병계(73)씨의 한숨 섞인 말이다. 장씨는 새해 첫날인 1일 “이제는 정말 눈이라면 진절머리가 난다”며 부엌진 660㎡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옛가락처럼 휘어진 조씨의 비닐하우스에는 지난 가을에 심은 배추·마늘이 수북이 쌓인 눈 밑에서 냉해로 죽어가고 있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상추를 재배하던 비닐하우스가 주저앉아 2천5백여만원의 피해를 본 데다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 한 동과 농작물 등 750여만원 상당의 피해를 또 입었다.

2년전인 2005년 12월 ‘백 년만의 폭설’ 피해를 힘겹게 딛고 일어난 이 지역 주민들 역시 넋을 잃고 있었다. 황룡면장 이정환(56)씨는 “장성

지역에서 폭설 피해를 본 37동의 비닐하우스 가운데 26동이 황룡면 지역에 집중돼 있다”며 “어제부터 휴일도 반납한 채 시설농가를 돌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은 위로의 말 외에 할 일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황룡면 신호리에서 딸기 등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서중경(42)씨는 2005년 최악의 폭설 때도 운 좋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비닐하우스 7동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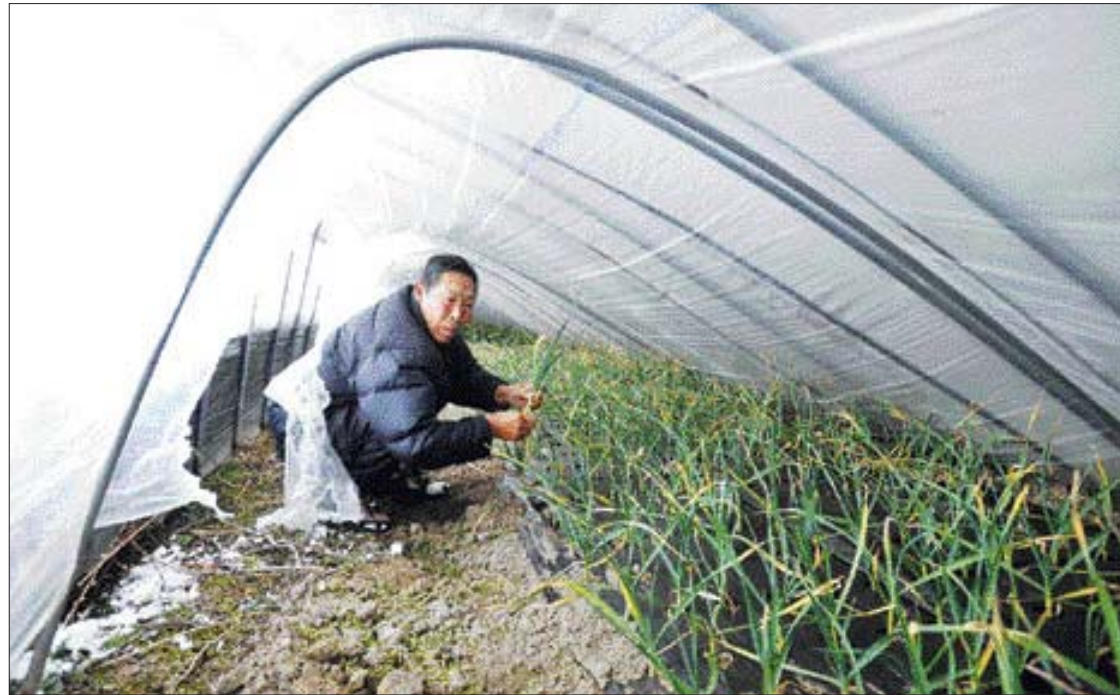
정씨는 “새해 첫날, 생일까지 겹쳐 올 한 해는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상심이 크다”며 “갈수록 농촌환 휴일도 반납한 채 시설농가를 돌며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당장은 위로의 말 외에 할 일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비닐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치우느라 밤잠을 설친 정명조(60·황룡

리)씨는 “비어있는 비닐하우스 4동이 붕괴했지만 일손이 부족한 관에 복구는 업무도 못 내고 있다”며 “오하리 탈정한 비닐하우스 주변에 쌓인 눈 때문에 환기를 시키지 못해 수확 중인 딸기에 병충해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5년에 내린 폭설로 인해 370여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장성지역은 이번에 41cm가량 폭설이 내려 현재까지 2억여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1일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조병계씨가 폭설로 무너져 내린 비닐하우스 안에서 냉해 피해로 죽어가는 마늘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다. /장성=니평기자 mjna@kwangju.co.kr

차지붕 눈 40cm 이고 다니면

성인 4명 무게... 기름 낭비 심각

차량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도로에 값비싼 기름을 붓고 다니는 손해를 보게 된다. 연말연시 광주·전남지역에 내린 폭설로 차량에 쌓인 눈의 무게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눈 무게는 보통 물 무게의 10분의 1인 0.1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적용할 경우 면적 1㎡에 1m

높이로 쌓인 눈은 같은 부피(1㎡)의 물에 비해 무게가 10분의 1이 되며, 물 1㎡이 1t이므로 눈의 무게 역시 10분의 1인 100kg이 된다.

일반 중형승용차의 경우 가로와 세로가 약 1.8m와 4.8m씩인 점을 고려하면 승용차의 곡선 표면을 감안하더라도 표면적 8㎡에 눈이 쌓이는 셈이다. 1일까지 광주 지역의

누적 적설량이 40cm 이상인 점을 계산에 넣으면 320kg의 무게가 위에서 짓누르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이는 눈이 날아가거나 녹지 않고 고스란히 쌓였을 상황을 가정해 단순 계산한 것이지만 눈을 치우지 않고 앞 유리에 쌓인 눈만 털어낸 채 운전한다면 몸무게 80kg의 성인 4명을 태우고 다니는 셈이어서 값비싼 기름을 낭비하게 된다.

또한, 차 위에 쌓인 눈이 갑자기 앞뒤로 쏟아질 경우 사고를 일으킬 위험도 있어 번거롭더라도 차에 쌓인 눈을 털고 운행하는 것이 좋고 고 전문가들은 충고했다. /연습스

여수 침몰 선박 '질산 유출 없다'

여수시 삼산면 백도 인근 해역에서 2천여의 질산을 실은 채 침몰된 화학약품 운반선인 이스턴 브라이트호에서 질산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경과 남해수산연구소, 학계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드러났다.

1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해수산연구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해양경찰청 방재전문가와 관련 교수 등이 참가한 가운데 첫 합동회의를 진행한 결과, 사고해역에서 질산이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0시 35분 첫 탄생...정오 첫 결혼

광주지하철 05시 30분 힘찬 출발

■ 광주·전남 새해 1호

2008년 새해를 맞아 광주·전남 시·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1호'의 주인공들이 새해 만사형통을 기원했다.

1일 새벽 0시 35분 체중 3.3kg의 건강한 남자아이가 광주시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에서 태어났다. 서구 금호동에 사는 이강욱(30)·김유정(여·31) 부부의 첫째 아들이다. 광주 무등중 교사인 이씨는 “무자년(戊子年) 쥐해 해에 맨 처음 태어난 만큼 복덩어리로 키우겠다”며 환하게 웃었다.

새해 첫 운행 광주 지하철은 새벽 5시30분 소태역과 삼우역을 동시에 출발한 '1001호'(기관사 박종혁·34), '1002호'(기관사 최영렬·33), 기관사 박씨는 “오는 3월이면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더 열심히 일해 훌륭한 아버지가 되겠다”며 “올해도 승객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주를 처음 출발한 열차는 새벽 5시25분 광주역에서 용산역을 향한 KTX '44'호(기장

강석·48), 광주 도착 1호열차는 용산을 출발, 새벽 0시19분 광주역에 도착한 KTX '519'호(기장 김우중·42)였다.

광주에서 새해 첫 결혼한 커플은 1일 정오 서구 치평동 상무리 초권벤치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린 양충일(31·경기도 안양시)·노진희(29)씨 부부, 남편 양씨는 “새해 첫 결혼인 만큼 ‘검은 머리가 파 뿌리 될 때’까지 행복하게 잘살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봉래면 외나로도 한국항공연구원 나로우주센터에서 첫 해맞이를 한 우주센터 경비원 최재근(40)씨는 “오는 11월로 예정된 나로우주센터에서의 첫 로켓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뤄져 우주강국이 됐으면 한다”고 소원을 밝혔다.

한국에서 처음 새해를 맞이한 몽골 이주여성 톱크 계별(25·구례군 산동면)씨는 “제2의 조국 한국에 대해 열심히 배워 2세를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톱크씨는 지난 12월 1일 남편 황태규(37)씨와 결혼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서구의회 의원이 무면허 뺑소니

광주서부경찰은 1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광주시 서구의회 김 모(43)의원에 대해 특가법(도주차량)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구암 27일 밤 10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무각사 앞 도로에서 면허없이 자신의 승

용차를 몰고가다 마주 오던 박모(49)씨의 승용차를 충돌, 박씨 등 3명에게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 의원은 수년 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면허 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398) 김장동



다 좋은 건축 신사업자 KCC

DS건설(주) KCC그룹, 연세의료대

KCC향교, 시스텔향교 생산·시공

(주)본드나리 KCC그룹, 연세의료대

실리콘·방수재·점착재·타이프

☎ 062-233-5119

눈싸움 꾸지람이 주먹싸움으로

○●●목길에서 여자친구와 눈싸움을 하며 예정행차(?)를 과시하던 20대가 이를 꾸지람하던 40대와 주먹다짐 끝에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1일 눈싸움 시비 끝에 서로 폭력을 휘두른 김모(27·광주시 북구 용봉동)씨와 이모(48·북구 신안동)씨 등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구암 31일 밤 10시에 북구 신안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여자친구인 조모(여·23)씨와 함께 눈싸움을 하던 중 길을 지나던 이씨가 “무슨 짓이냐”라고 따지자,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담담 경찰은 “경건하게 맞이해야 할 새해 첫날을 사소한 시비로 인해 경찰 조사나 받고 있어야 겠느냐”며 양쪽 모두에 꾸지람.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다양한 부동산 광고와 서비스의 모음. 부동산 매매, 임대, 전세, 그리고 각종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광고가 포함되어 있다. 각 광고에는 부동산의 위치, 가격, 그리고 연락처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